

에너지·환경회의, 「혁신적 에너지·환경전략」 책정을 위한 중간정리(案) 발표

7월 29일, 국가전략실 에너지·환경회의는 일본재생을 위한 「정책추진지침」에 따라 관계기관·회의 등에서의 검토상황 등을 토대로 재해복구와 함께 일본재생을 위한 「혁신적인 에너지·환경전략」 책정을 위한 중간정리(案)을 발표함.

- 에너지·환경회의는 당면한 「에너지수급 안정책」에 근거하여 수요구조, 공급다양화 및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전력시스템 개혁을 추진하여 원자력 안전대책을 철저히 하는 「혁신적인 에너지·환경전략」에 대해 다양한 각도에서 전개
 - 일본의 전력공급의 절반을 원자력발전에 의존한다는 지금까지의 에너지전략을 개편하고 단기적으로는 현실에 맞는 해결책 제시
 - 당면의 에너지수급에 대해서는 수급동향을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구체적인 대책을 강구한 안정성장 확보
 - 에너지절약과 재생가능에너지를 새로운 핵심적 근간으로 하는 에너지·환경전략을 구축하고, 성장전략의 핵심이 되는 신기술체계를 기반으로 하는 혁신적인 시스템을 지향하며, 중장기적으로 효과를 발휘하는 시책도 조기에 구체화하여 에너지·환경기술에 대한 민간투자 촉진

□ 동일본대지진으로 밝혀진 에너지에 관한 4가지 과제

- (백지상태에서 전략구축) 일본의 에너지구조는 리스크에 취약하여 안전·안정, 저렴하고 환경친화적인 에너지구조의 재구축이 긴급 과제임. 기존의 에너지기본계획을 백지화하여 재검토하고, 그린이노베이션 관련 전략을 강화하여 앞당기더라도 재검토 필요
- (성역없는 검증) 현행 계획과 전략이 전제로 한 원자력의 안전성, 전력시스템의 유효성, 원자력 발전단가 등의 철저한 검증 필요
- (다양한 주체의 창의성과 경쟁이 촉진되는 에너지시장 구축) 개개의 수요처가 에너지생산과 소비의 합리화에 참가, 다양한 주체의 창의와 연구가 확산되어 현장개선, 기술혁신, 비용경쟁이 촉진되는 새로운 에너지시장 구축 필요
- (복합적 전략구축) 당분간은 피크시의 전력공급 확보와 에너지비용의 철저한 억제에 초점을 맞추어 주로 에너지절약 구조로의 전환을 취지로 한 대책에 집중. 중장기적으로는 재생가능에너지와 화석연료의 청정화를 핵심으로 한 그린이노베이션을 가속하면서 신기술체계를 기반으로 혁신적인 에너지시스템 구축을 지향

□ 혁신적 에너지·환경전략의 기본이념

- (새로운 베스트믹스를 위한 3원칙) ①원전에 대한 의존도저감 시나리오를 묘사하고, ②에너지부족과 가격상승 등을 방지하기 위해 명확하고 전략적인 공정을 책정, ③원자력정책의 철저한 검증을 실시하여 새로운 모습을 추구

- (새로운 에너지시스템 실현을 위한 3원칙) ①분산형 에너지시스템 실현을 지향, ②과제해결 선진국으로서의 국제적인 공헌 지향, ③ 분산형 에너지시스템 실현을 위해 다양한 각도에서 접근 시도
- (국민합의 형성을 위한 3원칙) ① ‘탈원전’ 과 ‘원전추진’ 의 양 대립을 초월한 국민적 논의 전개, ②객관적인 데이터 검증에 근거하여 전략을 검토, ③국민과의 대화를 계속하면서 혁신적 에너지·환경전략 구축

□ 기본이념에 근거하여 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한 전략공정

- (단기; 향후 3년) 에너지구조 개혁의 선행실시와 당분간 수급 안정에 전력을 기울임. 원전의존도 저감에 대해서는 국민적 논의를 거듭하여 대응방안 결정
- (중기; ~ 2020년) 새로운 베스트믹스와 에너지시스템 지향
- (장기; 2020 ~ 2050년) 새로운 베스트믹스와 에너지시스템의 성과 실현

□ 혁신적 에너지·환경전략을 위한 6가지 중요과제

- (에너지절약) 사회적인 의식개혁, 라이프스타일의 변혁과 에너지 수요 구조개혁에 도전
 - (단기) 기술과 제품에 의해 뒷받침되는 수요처 주도의 에너지 수요관리 개시
 - (중기) 수요처 주도의 에너지 수요관리 보급
 - (장기) 그린이노베이션 실현

- (재생가능에너지) 기술혁신과 시장확대에 의한 실요성의 도전
 - (단기) 재생가능에너지 도입촉진에 의한 공급 다양화
 - (중기) 기술혁신과 시장확대에 의한 도입 가속화
 - (장기) 그린이노베이션 실현
- (자원·연료) 효율적 이용, 환경성 향상에 의한 전략적 이용에 도전
 - (단기) 안정공급과 전략적 활용
 - (중기) 녹색화의 가속과 전략적 활용
 - (장기) 그린이노베이션 실현과 국제전략 추진
- (원자력) 높은 안전성 확보와 원전의존도 저감에 도전
 - (단기) 높은 안전성에서의 활용과 원전의존도 저감에 관한 국민적 논의를 감안한 대처방안 결정
 - (중기) 원전의존도 저감에 관한 국민적 논의를 감안한 대응
 - (장기) 원전의존도 저감에 관한 국민적 논의를 감안한 대응
- (전력시스템) 수급안정, 비용절감, 리스크관리에 지속적으로 도전
 - (단기) 기존시스템의 개혁, 신시스템의 선행실시에 의한 수급안정, 비용상승 방지
 - (중기) 분산형의 새로운 에너지시스템의 보급, 집권형의 기존시스템과의 공존, 경쟁
 - (장기) 분산형의 새로운 에너지시스템 실현
- (에너지·환경산업) 강인한 산업구조의 실현과 고용창출에 도전
 - (단기) 업종(전기, 가스, 열)을 초월한 총합에너지산업 육성
 - (중기) 업종(전기, 가스, 열)을 초월한 총합에너지산업 태두
 - (장기) 신산업과 고용창출

□ 혁신적인 에너지·환경전략 실현을 위해

- 에너지절약 및 재생가능에너지를 새로운 핵심적 근간으로 하여 지금까지의 원자력에너지, 화석에너지라에 추가하여, 기본적인 사고에 근거하여 논점을 정리하고 연내까지 ‘중간적 정리’로 초안을 정리하여 궁극적으로는 분산형 에너지시스템을 지향
- 6가지의 중요과제(에너지절약, 재생가능에너지, 자원·연료, 원자력, 전력시스템, 에너지·환경산업)에 대해 단기·중기·장기별로 논점 정리
- 원자력을 비롯한 철저한 비용파악 및 중장기적인 전망, 재생가능 에너지를 비롯한 기술혁신과 경제효과 파악, 화석연료를 비롯한 환경성능 향상가능성 평가 등 새로운 베스트믹스를 검토하는데 있어 전제가 되는 검증사항을 구체화
- 전력시스템에 대해서는 정보의 투명성확보를 촉구하면서 전력수급 안정과 비용절감, 분산형전원의 촉진과 수요의 자율적 제어, 원자력의 리스크관리 등 달성해야할 목적을 구체화한 후에, 관계기관의 검토상황 등을 감안하면서, 발·송전 분리를 포함한 전력시스템의 바람직한 모습에 대한 논점 정리
- 지금의 에너지기본계획을 전면 재검토하여 새로운 베스트 믹스(신에너지기본계획)의 실현을 위해 원자력발전 의존도 저감에 관한 시나리오 구성이나 원자력정책의 철저한 검증 등을 실시함으로써, 그린이노베이션 전략을 앞당겨서 실시하여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함

□ 시사점

- 대책의 근간은 에너지절약의 가속, 자가발전·천연가스 등의 유효 활용, 재생가능에너지의 적극적 활용, 기존 원자력발전소의 안전 확보 철저 등의 대응을 적절한 형태로 조합시키고 있음
- 대책의 내용은 제도개혁과 지원책 강화, 사회의식 개혁에 이르기 까지 종합적인 것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속적인 수요의 합리화와 공급확보가 이루어져서 안정된 수급구조를 구축하되, 산업분야의 대책과 가정·상업분야 등의 대책을 분리하여 효과적인 대책을 강구함

자료 : 에너지·환경会議, 「革新的エネルギー・環境戦略」策定に向けた中間的な整理(案)(2011.7.29)